

## ■ 2024년 공연예술창작산실 대본공모(연극 분야) 심사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사분과 : 2024년 공연예술창작산실 대본공모(연극 분야)
- 회의일시 및 회의장소
  - (예심) 2024년 4월 5일(금) ~ 5월 9일(목) / 온라인 심사
  - (본심) 2024년 5월 17일(금) 14:00 ~ 17:00 / 아르코미술관 위원회의실
- 심사위원명(가나다순) : 김은성, 박정석, 양근애, 차하을, 황운기

2024년 공연예술창작산실 대본공모(연극 분야) 사업은 우수한 대본을 발굴하여 극작가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창작 활동에 더욱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올해도 예년만큼 많은 지원작이 응모하여 동시대적 고민을 담은 창작극에 대한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원자 비공개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총 14건의 지원작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작품의 지원자 분들께 축하의 마음과 함께, 아쉽게도 선정작에 들지 못한 분들의 용기와 의지에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심사위원회는 연극 분야 총 201건 신청 작품 중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작품을 전수 검토하는 방식으로 예심을 진행하였습니다. 본심에서는 예심을 거쳐 올라온 37건의 지원작에 대하여 세심하게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극작, 연출, 평론, 기획 및 제작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5인이 위촉되어 '작품의 예술성(80%)'과 '작품의 무대화 가능성(20%)'을 고려한 심사 기준을 바탕으로 작품의 수월성과 차별성, 동시대성에 관한 의견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시대 의제들과 함께 호흡하는 한국 연극의 현실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역사부터 미래의 시공간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가진 다채로운 작품들을 통해 연극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와 소재가 확장되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다만, 일부 역사를 다룬 지원작이 관련 자료들을 섭렵하여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진지하게 재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역사 인식이나 새로운 역사 해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는 아쉬운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실을 퓌진하게 다룬 희곡도 있었으며 아이디어를 밀고 나가는 힘이 약하거나 다소 장황한 진술에 의지하는 작품도 있었습니다. SF에 대한 연극적 시도의 경우, 인간 존재에 대한 물음을 반복하지 않고 미래의 세계관을 어떻게 잘 구축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사회적 불평등, 청년 빈곤, 초고령화 사회, 소수자 인식 등 동시대 사회적 문제를 비판적으로 그리면서도 현실에 대응하는 힘을 놓치지 않은 작품들을 만나 반가웠습니다. 다만, 일부 지원작은 호흡이 지나치게 짧거나 장면 전환이 잦은 등, 영상매체와 다른 연극 무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작품들이 여전히 많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성을 다해 쓴 작품들이 많았기에 신중하게 논의를 거듭하였습니다. 대본공모 사업이 희곡의 발굴에 그치지 않고 극장에서 관객을 만나는 과정의 출발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동시대 관객이 공감할 수 있는 정서를 담았는지, 무대화에 적합한 작품인지, 형식과 장르에

대한 새로움을 발견할 수 있는지 등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선정작들 역시 지속적으로 작품을 수정·보완하여 무대화 과정을 적극적으로 상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술가의 시간은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에 훨씬 더 많이 바쳐집니다. 창작을 위해 거뒀을 고심과 고투에 모두 값하진 못할지라도, 대본공모 사업이 창작자 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더 예리하고 훌륭한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능성과 잠재성을 지닌 작품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계속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연극의 발전을 이끌어갈 좋은 작품들을 무대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공연예술창작산실 대본공모(연극 분야) 심사위원 일동